

# 광주시·전남도 한전공대 후보지 3곳씩 추천

광주 첨단3지구·첨단산단·승촌보...전남지역 3곳  
28일께 최종 확정...지자체간 유치 경쟁 물밑 치열

한전공대 추천부지로 8일 광주시는 북구 첨단3지구,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촌보 등 3곳 그리고 전남도는 나주시역 3곳을 각각 한전 측에 제출했다.  
광주시·전남도는 이날 "3곳씩의 후보지를 한전 측에 제출했다"며 "현장실사와 평가 과정에서 이뤄질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후보지 서류제출 마감일인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3곳씩 총 6곳에 대한 추천 서류 30부씩을 한전공대 용역사 사무실에 제출했다.

한전과 광주·전남도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공개적으로 유치를 요청한 첨단3지구

를 제외한 다른 5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이제 공은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용역사는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부지를 심사할 한전공대 부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심사위는 위원 명단 유출이나 로비 등을 피하기 위해 부지 심사일정 직전에 20명 내외로 비공개 구성한다. 심사위 구성을 마치면 위원들은 수일에 걸쳐 각 지자체 추천부지 6곳을 현장실사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천부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

을 하게 되는데, 서류제출이 마감된 후 곧바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현장실사와 평가는 1월 넷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성을 위해 현장실사나 평가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위는 부지선정 심사 결과를 담은 서류를 봉인해 한전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발표 시기는 늦어도 오는 28일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전 측은

구체적인 발표 방법을 고심 중이다.

이에 따라 후보지역 간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공동성명과 지난 4월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한전공대 입지 선정 결과 존중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지만 한전공대 유치를 갈망하는 지자체간 물밑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추천한 부지들이 산학연 연계, 정주 요건, 교육 여건, 교통요건 등 부분에서 월등히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 부지선정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예산지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때 광주의 양보로 한전이 전남지역에 온 만큼 한전공대는 광주에 유치해 시도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천 부지 3곳을 모두 나주시 관내로 선정했고, 이들 추천부지는 국공유지가 다수 포함돼 부지확보 비용이 저렴한 것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또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 협의회 협약식'에서 문인 북구청장, 고점례 북구의회의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배홍석 광산구의회의장, 최형식 담양군수, 김경호 담양군의회의장, 유두석 장성군수, 차상현 장성군의회의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용섭 시장 "외부용역 의존 행태 버려야"

간부회의서 강조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외부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업무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간부 회의에서 "주요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면 공직자들의 첫 반응은 '용역을 맡기겠습니다'였다"며 "용역 예산 확보하고 용역 결과 기다리느라 1~2년은 금방 지나간다. 이러면 임기 중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버리기 바란다"며 "공직자들이 스스로 머리를 싸매고 해법을 찾기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열정을 쏟아야 예산과 시간 절약은 물론 전문성도 쌓이고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오는 14일 단행할 예정인

사무관 이하 직원 정보인사에 대해 인사가 산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인사가산점 제도는 승진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개인의 성과로 볼 수 없는데도 개인에게 인사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인사가산점을 줄 만한 성과가 아님에도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혁신정책관실은 인사가산점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적재적소 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 부서 1년 미만 근무자 전보 제외,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전보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부서 최대한 존중 ▲외부인사 청탁 불이익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6개월째 1위

리얼미터 조사...이용섭 4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리얼미터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개월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지도 순위가 취임 초기 중위권에서 4위로 크게 뛰어 올랐다. 김 지사는 이례적으로 취임 이후 직무수행 지지도 1위를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으며, 이 시장은 지사를 제외한 특·광역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시·도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8년 12월 월간 광역자치단체 평가'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민선 7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60.9%를 기록해 6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53.8%), 최문순 강원도지사(53.5%)가 2개월 연속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하고 있다. 4위는

이용섭 광주시장(52.3%)으로, 중위권인 8위에서 4위로 전월에 비해 4계단이나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결기(RDD) 자동응답전화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경기도가 61.7%의 만족도로 1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61.2%, 전남이 60.7%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60.1%) ▲대전(56.0%) ▲광주(55.7%) ▲세종(53.3%) ▲대구(53.2%) ▲강원(51.7%) ▲경남(51.5%) ▲부산(51.2%) ▲충북(50.9%) ▲인천(50.9%) ▲전북(48.9%) ▲충남(47.9%) ▲전남(46.6%) ▲울산(38.8%) 순으로 조사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40층 이상 아파트 허가 안할 듯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용역’ 착수

광주시가 당분간 40층 이상 아파트 등 건축물 허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주변에 비해 지나치게 우뚝 솟아 도시 경관에 이질감을 주는 고층 건축물의 신축을 자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8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광주 시내 아파트 디자인을 분석하고 타 시·도 선진지 사례 조사를 통해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지역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4.7%로, 6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병풍형 획일화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적정 아파트 높이, 권장 디자인, 안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40층 이상 아파트 등 건축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허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지난해 말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광주 서구 화정동 23~2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6층 규모의 2개 건축물(아파트 724세대, 오피스

텔 152호)을 짓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39층으로 낮춰 승인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 시내 40층 이상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중인 아파트는 모두 3곳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광주지역 내 승인받고 준공한 공동주택 디자인 및 안전성 현황 조사 ▲현재 광주시 공동주택 여건 분석 등 크게 두 가지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주변 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과 역사자원과 조화 고려 여부, 보행가로를 고려한 공간 계획, 주요 조망방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통행성, 바람길 등 확보, 건축물 높이 및 규모의 주변경관자원 및 지형 등 지역특성과 조화, 대지의 형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주동 형태 및 층수, 평면 및 단면 등을 살피게 된다.

안전성 영역에서는 소방 관계, 안전성, 무장애 공간 및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검토한다. 광주시 건축기본 조례, 건축 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주택 조례, 공동주택 건축심사에 관한 규칙,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경관 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정의 수정·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민간정원 지정

전남도는 올해 첫 민간정원으로 장흥 하늘빛수목정원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수목원·정원별 제정 이후 전국 22번째, 전남 제8호 민간정원이다.

하늘빛수목정원은 운영자인 주재용(61) 씨가 25년 전 330여㎡의 땅을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조성됐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 300여종의 명품 조경수와 튼튼한 야생화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이른 봄 화사한 튼튼이 흐드러지고, 여름까지 화기만 야생화와 수목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목화를 연상케 한다. 가을엔 노랑과 빨강 단풍이 절경인 단풍정원과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정원이 제격이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승마와 볼꽃 심기체험을 운영

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4회 튼튼축제에는 2주간 1만 5000여명이 꽃의 향연을 즐겼으며 올해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에는 지난 2017년 지정된 고흥 힐링파크썬썬썬, 담양 죽화경, 보성 초암정원, 고흥 금세기정원과 지난해 지정된 구례 쌍산재, 보성 갈매정원, 고흥 장수호힐링정원 등 7개의 민간정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가격 폭락’ 전남 가을배추 1392t 산지 폐기

전남지역 가을배추 1392t이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 폐기된다. 전남도는 배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있는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등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가을배추는 전년보다 재배 면적이 2.6% 줄고 겨울배추도 1.6% 줄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단수가 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로 김장 수요가 매년 3% 감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됐지만 요식업체, 대량급식소 중심으로 김치 수입량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